

2019년 10월 3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FOMC 를 기다리며 매물 출회 실적 부진과 최근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이 하락 주도

미 증시 하락 요인: 밸류에이션 부담, FOMC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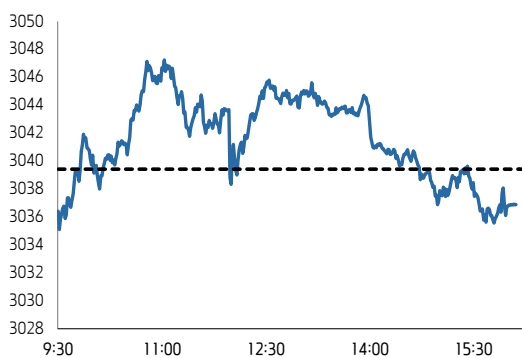
미 증시는 특별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FOMC 를 기다리며 하락 마감. 특히 10 월 들어 10% 넘게 급등했던 애플(-2.31%)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 더불어 알파벳(-2.20%)과 머크(+3.50%) 등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른 등락도 특징(다우 -0.07%, 나스닥 -0.59%, S&P500 -0.08%, 러셀 2000 +0.33%)

10 월 한달 동안 4% 가까이 상승했던 나스닥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특히 이달 들어 10~20%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애플, NVIDIA, 인텔, 마이크론, AMAT 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된 점이 특징. 지난 금요일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기준 40%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8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발표. 그러나 여전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 둔화되는 등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기록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12 개월 Fwd PER 이 10 년평균(14.9 배)는 물론 5 년평균(16.6 배)을 넘어선 17.0 배를 기록하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이 매물출회로 이어진 모습.

이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과 아마존은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고,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을 비롯해 일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도 부진한 모습. 물론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머크와 화이자, GM 등이 강세를 보이는 등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등락을 보인 점도 특징.

이런 가운데 FOMC 에 대한 부담도 지수 하락을 견인. 시장참여자들은 이번 FOMC 에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모습. 연준이 성명서에서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을지, 추가 인하 중지를 시사하는 문구가 포함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은 양상. 한편, 이번 FOMC 에서는 금리인하 반대표수가 중요. 에스더 조지, 로젠그렌 등 매파적인 위원에 이어 찰스 에반스 총재와 클라리다 부의장 등 최근 발언에서 금리동결을 시사했던 위원들도 인하 반대에 동참할지 주목. 만약 반대표가 3 표 이상이면 추가 인하의 한계를 시사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등락률(%)	Close	D-1	주요종목	지수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092.69	-0.04	홍콩항셱	26,786.76		-0.39	
KOSDAQ		658.30	+0.90	영국	7,306.26		-0.34	
DOW		27,071.46	-0.07	독일	12,939.62		-0.02	
NASDAQ		8,276.85	-0.59	프랑스	5,740.14		+0.17	
S&P 500		3,036.89	-0.08	스페인	9,400.10		-0.35	
상하이종합		2,954.18	-0.87	그리스	873.40		+0.13	
일본		22,974.13	+0.47	이탈리아	22,680.74		-0.0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2.31%, 알파벳 -2.20%

알파벳(-2.20%)은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하락 했다. 아마존(-0.81%), 넷플릭스(-0.23%), 페이스북(-0.05%) 등 여타 FANG 기업들도 하락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비온드미트(-22.22%)는 경쟁심화가 이어지는 등 향후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급락했다. 반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NXP 세미컨덕터(+5.30%)는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회사인 머크(+3.53%), 화이자(+2.49%), 세일오일 업체인 코노코필립스(+2.53%), 자동차 업체인 GM(+4.28%)도 파업 여파로 가이던스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애플(-2.31%)은 하락 요인이 없는 가운데 이달 들어 10% 넘게 상승한 여파로 차익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상승폭이 컸던 마이크론(-1.19%), NVIDIA(-1.87%), AMAT(+2.51%), 램리서치(-1.69%)등도 하락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암젠(+1.94%)는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시밀러 매출 증가에 힘입어 보험권 등락을 보이고 있다. AMD(-1.96%)는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 여파로 소폭 부진 했으나, 주가는 약보합에 머물렀다. EA(-2.39%)도 시간외로 1% 넘게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66%	대형 가치주 ETF(IVE)	-0.15%
에너지섹터 ETF(OIH)	+1.28%	중형 가치주 ETF(IWS)	+0.22%
소매업체 ETF(XRT)	-1.65%	소형 가치주 ETF(IWN)	+0.35%
금융섹터 ETF(XLF)	+0.24%	대형 성장주 ETF(VUG)	-0.46%
기술섹터 ETF(XLK)	-0.91%	중형 성장주 ETF(IWP)	0.0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9%	소형 성장주 ETF(IWO)	+0.36%
인터넷업체 ETF(FDN)	-1.46%	배당주 ETF(DVY)	+0.14%
리츠업체 ETF(XLRE)	+0.2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8%
주택건설업체 ETF(XHB)	-0.5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9%
바이오섹터 ETF(IBB)	+0.43%	미국 국채 ETF(IEF)	+0.09%
헬스케어 ETF(XLV)	+1.42%	하이일드 ETF(JNK)	-0.22%
곡물 ETF(DBA)	-0.31%	물가연동채 ETF(TIP)	-0.25%
반도체 ETF(SMH)	-0.68%	Long/short ETF(BTAL)	+1.4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7.97	+0.42%	+0.89%	+2.55%
소재	368.83	+0.67%	+3.06%	+3.52%
산업재	666.71	+0.39%	+1.38%	+4.30%
경기소비재	948.69	-0.59%	-0.80%	+0.93%
필수소비재	625.69	-0.04%	+0.00%	-0.31%
헬스케어	1,088.55	+1.16%	+2.44%	+5.34%
금융	479.31	+0.28%	+1.60%	+5.14%
IT	1,460.08	-0.92%	+3.16%	+4.19%
커뮤니케이션	171.03	-0.96%	+0.81%	+3.30%
유틸리티	321.58	+0.11%	-1.53%	-1.80%
부동산	242.59	+0.38%	-2.09%	+0.6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FOMC 기다리며 차익매물 출회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0% MSCI 신흥 지수 ETF 는 0.51%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81 계약 순매수 했으나 0.25pt 하락한 277.5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6.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 특징은 FOMC 에 대한 부담속에 밸류에이션 우려가 높아진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우호적인 영향을 주며 낙폭이 제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차익매물이 이어진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특히 이러한 미 증시의 특징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에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에 대한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그동안 온건한 연준의 통화정책에 기대 상승을 이어왔던 점을 감안 매파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FOMC 를 앞두고 있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다만, KOSPI 기준 12 개월 Fwd PBR 이 0.82 배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은 미국과 달리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지 않다. 비록 PER 의 경우 11 배를 넘어서고 있으나, 이 또한 실적이 바닥을 확인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제한적인 움직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청년층 소비심리 급감

10 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126.3)이나 예상(128.8)을 하회한 125.9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현재 여건지수(170.6→172.3)은 상승 했으나, 기대지수(96.8→94.9)는 하락 했다. 대체로 향후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부담을 표명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대지수는 지난 6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35 세 미만(150.0→139.0)이 급감했으나, 35~54 세(127.3→127.3)과 55 세 이상(115.4→118.9)는 견조했다.

9 월 잠정주택판매 지수는 전월(mom +1.6%) 보다는 둔화된 전월 대비 1.5% 증가에 그쳤으나, 예상(mom+0.7%)를 상회했다.

8월 케이스샐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둔화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관망세 짙은 하루

국제유가는 재고 증가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비록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러시아 에너지 차관의 전일 추가 감산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 발언 여파가 오늘도 이어진 모습이다.

달러화는 부진한 경제지표 결과 및 장중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강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의 경우 12월 12일 조기 총선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이 찬성으로 돌아서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강세폭은 축소되었다. 다만, 매파적인 FOMC를 기다리며 달러화 약세폭이 축소되었다.

국채금리는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FOMC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이는 소비자신뢰지수 부진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3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애플런타 연은의 GDPNow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 또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FOMC를 기다리며 하락폭은 제한되었다.

금은 FOMC를 앞두고 소폭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FOMC를 기다리며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8% 하락했으나, 철근은 0.45%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5.54	-0.48	+1.95	Dollar Index	97.691	-0.07	+0.17
브렌트유	61.59	+0.03	+3.17	EUR/USD	1.111	+0.09	-0.13
금	1,490.70	-0.34	+0.22	USD/JPY	108.86	-0.08	+0.34
은	17,831	-0.25	+1.89	GBP/USD	1.2864	+0.01	-0.06
알루미늄	1,754.00	+0.98	+2.04	USD/CHF	0.994	-0.06	+0.45
전기동	5,927.50	+0.33	+1.88	AUD/USD	0.6863	+0.37	+0.12
아연	2,544.00	+0.02	+3.39	USD/CAD	1.3088	+0.25	-0.05
옥수수	386.25	+0.59	-0.45	USD/BRL	3.9999	+0.19	-2.06
밀	511.50	-0.05	-1.25	USD/CNH	7.0649	+0.01	-0.16
대두	933.50	-0.21	-1.56	USD/KRW	1163.00	-0.66	-0.57
커피	98.95	-1.54	+0.05	USD/KRW NDF1M	1166.75	-0.09	-0.4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833	-0.88	+7.25	스페인	0.285	-1.80	+2.70
한국	1.766	-1.10	+11.90	포르투갈	0.225	-2.20	+1.60
일본	-0.102	+2.00	+2.30	그리스	1.224	+1.40	-5.10
독일	-0.351	-1.90	+1.70	이탈리아	0.985	-1.80	+6.30